

TV 3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40 코로닝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특선 양극극 인기극장 (순남씨의 비밀정원)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이브의 사랑)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 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소셜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20 시사 인사이트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지구촌 뉴스	10 좋은 아침
11	3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네트워킹 특선 필통 55 바른말 고운말	00 수목드라마 (여왕의 꽃)(재)	00 KBC 생활뉴스 20 여왕의 꽃(재)
12		00 KBS 뉴스12	05 비타민	00 SBS 12 뉴스 50 닥터365
1	50 뉴스특급	00 KBS 명품역사관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별가족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10 체인지업 도시탈출(재)	15 MBC 스포츠 2015 MBC배전 대학농구 준결승전
2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생활의 발견(재)		00 남도의 보물 100선 20 세상발견 유레카
3	00 직언직설	55 튜튼생활체조	4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00 건강 클리닉(재)
4	2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장인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명강의 시리즈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40 TV 유치원 공다공	00 MBC 뉴스 10 보름달 공방 40 헬로키키 사이클스
5	4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지오그래피	10 코파 반장의 통쾌수사대 (재) 40 동물의 세계(재)	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30 푸르기 탐구 생활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생생정보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바이클론스
7	1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7 30 한식 밀라노에서 길을 묻다	50 일일 드라마 (오늘부터 사랑해)	00 날씨와 생활 55 닥터 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8	20 아내가 뿔났다(재)	25 일일연속극 (가족을 지켜라)	30 반려동물극장(단편) 55 시간을 달리는 TV	10 시사타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돌아온 황금복)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00 SBS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광복70년 기획 KBS 다큐1 55 국민대활황 우리가	00 수목 드라마 (여왕의 꽃)	00 드라마 스페셜 (가면)
11	00 구원의 밤상	00 KBS 뉴스라인 40 글로벌 다큐멘터리 5부작 (인간과 우주)	10 해피 투게더 여름스페셜	15 자기야
12	40 카톡쇼 X	40 영상기록 500일 금강비행	5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9:35 이말! 스페이스 정글	14:15 정글북 2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
05:30 건강한 아침	09:40 달리자여우	14:30 머털도사	19:00 돌진 슈퍼가정부와 위험한 동네
05:40 만나고 싶습니다(재)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00 초능력 특공대	19:30 EBS 뉴스
06:10 세계의 눈(재)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15 두끼 탐험대	19:50 청춘! 세계도전기
07:00 뽀빠에 친구(재)	11:10 다큐 오늘	15:30 뽀빠에 친구들	20:40 다큐오늘
07:15 책과 평화(재)	11:20 세계대마기행	15:45 부흥! 부흥! 브루미즈	20:50 세계대마기행
07:30 최강의 눈(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엉뚱당 유치원(재)	(하일타이와 열굴, 네발)
07:45 꼬마버스 타요(재)	12:10 연중기획	16:20 원더볼즈	21:30 한국기행
08:00 엉뚱당 유치원	(행복한 교육세상)	16:30 우당탕탕 아이쿠	(여름 합천)
08:20 로보가 풀리(재)	13:05 역사채널E	16:45 책과 땅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08:35 방귀대장 뽀빠이	13:10 초등 6학년 여름방학생활	17:00 방귀대장 뽀빠이(재)	22:45 다문화 고부열전
08:50 코코몽 3	13:30 초등 5학년 여름방학생활	17:15 풍선 꼬끼리 발루보	23:35 글로벌 가족정하기
09:05 원더볼즈(재)	13:50 초등 4학년 여름방학생활	17:30 두다다공	24:05 역사채널E
09:20 풍선 꼬끼리 발루보	14:10 배움 너머	17:45 로보가 풀리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1.2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 II-일파개념>	12:15 올림포스 <국어 II-일파개념>
00:50 <고교 영어독해-junior>	13:05 수능특강 light <영어-듣기>
01:40 <화환과 통계>	14:00 2016 수능완성 <국어B>
02:30 <기하와 벡터>	14:50 올림포스 <화환과 통계>
03:20 <수학 II>	15:40 <기하와 벡터>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수학 II>	16:30 <수학 II>
05:00 뉴탐스런 <화학 I>	17:2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기하와 벡터>
06:00 <지구과학 I>	18:10 2016 N제 <수학B>
06:40 <세계지리>	19:20 <세계사>
07:30 <법과 정치>	20:00 EBS 스타강사 특강
08:20 2016 수능개념 <윤연주의 영어>	20:50 2016 인터넷 수능
09:10 <이은주의 수학 II>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B형>
10:10 2016 수능완성 <영어A>	21:50 <문학 B형>
11:00 <수학 I b>	22:30 박복의 이슈로 만성은 경제

EBS플러스2

07:00 2015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5:40 초등 2년 EBS 여름방학생활
07:30 경찰직 공무원 시험대비강좌	16:00 초등 3년 EBS 여름방학생활
08:30 무역영어 급급 시험대비 강좌	16:20 초등 4년 EBS 여름방학생활
09:00 출거온 수학 EBS MATH	16:40 초등 5년 EBS 여름방학생활
09:10 TV 중학 <수학 I(하)>	17:00 초등 6년 EBS 여름방학생활
09:50 <영어 I>	17:20 만점왕 문제풀이 <전과목 6-1>
10:30 <도덕>	18:00 TV 중학 <수학3(하)>
11:10 <수학2(하)>	18:40 <영어3>
11:50 <영어2>	19:20 필독 중학 국어 <소설>
12:30 EBS 특강	20:00 EBS 인문학 특강
13:00 데일리 서술형 수학	20:50 EBS 기원사특강
13:10 통합인공 <사회1>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13:50 <사회2>	22:00 등업인공 <역사 2>
14:30 <역사1>	22:40 <과학3(하)>
15:20 초등 1년 EBS 여름방학생활	23:20 필독 중학 <사회2-2>



'암살'의 전지현 (가운데)

남자 주연배우의 '짝'을 넘어서 ... 이젠, 여배우가 '톱'

"이런 여자 주인공은 인생에 몇 번 못 만날 것이라는 욕심이 있었어요. 한국영화에서 나오기 쉽지 않은 캐릭터이고 저한테도 얼마 안 되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개봉 일주일 만에 40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암살' 주연배우 전지현은 출연을 결심한 이유 중 하나로 "한국영화에서 보기 드문 여자 캐릭터"를 들었다.

스크린 데뷔 18년차 톱스타도 역량을 펼칠 만한 기회가 드물게 찾아온다는 고민을 안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런 충무로가 최근 달라졌다.

여자 주연배우를 남자 주연배우의 '짝'으로 채워넣던 과거와 달리 '톱'으로 세우는 영화가 늘었다.

대형 배급사들이 대규모 제작비를 투입해 여를 성수기에 내세운 대작 상업영화 가 이런 트렌드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 특히 눈에 띈다.

'암살'은 이정재, 하정우라는 톱스타가 주연배우로 함께 활약했지만, 사실상 전지현이 '톱'인 영화다.

전지현은 무거운 총을 들고 지붕을 뛰어넘고 저격 대상인 친일파가 탄 차를 필사적으로 추격하는 등 영화 속 주요 액션 장면들을 소화했다.

뒤이어 찾아오는 '협녀, 칼의 기억'은

'암살' 전지현 '협녀' 전도연·김고은 '뷰티 인사이드' 한효주 등 충무로, 여배우 전성시대

여배우 들을 전면에 내세운 무협 사극이다. 고려 말 권력을 탐한 김, 대의를 지키는 김, 복수를 꿈꾸는 김이 부딪힌다는 설정의 이 영화에서 세 개의 김을 상징하는 캐릭터를 각각 이병헌, 전도연, 김고은이 맡았다.

이야기를 끌고 가는 이병헌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지만, 애초 박홍식 감독이 "여자들이 펼치는 무협"을 구상하면서 출발한 작품인 만큼 두 여배우의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할 만하다.

전도연은 최근 제작보고회에서 "박 감독님이 '인어공주'(2004)를 함께하고 나서 여자들의 무협극을 찍고 싶다고 하셨는데 8년 뒤 시나리오가 나오기도 연락이 없기에 내가 먼저 연락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주연 배우 김고은은 "여성이 주역이 된 새로운 누아르의 발견"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지난 4월 개봉작 '차이나 타운'에서 김혜수와 함께 화장을 찍

지워낸 연기를 선보여 흥행에 성공한 바 있다.

내달 20일 개봉을 앞둔 '뷰티 인사이드'도 여배우 한효주가 중심에 있는 영화다. 날마다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남자 우진과 사랑에 빠지는 여자 이수가 주인공인 로맨스물인 터라 중심에 위치한 여자 주연배우 한효주의 주변을 남자 주인공을 연기하는 배우 수십 명이 에워싼다. 한효주도 이 영화 제작보고회에서 출연을 결심한 배경을 소개하며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좀 더 규모가 작은 영화에서도 여배우들은 주목할 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성실하게 살면 잘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여자 수남이 세상을 향한 복수에 나선다는 줄거리의 내달 13일 개봉작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가수 겸 배우인 이정현은 '원톱'으로 나섰다.

배우 고아성도 한 회사원의 일가족 살해 사건 이후 회사에서 벌어지는 의문의 일을 추적하는 내달 27일 개봉작 '오피스'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다.

제작 중인 영화들 중에서도 여배우 역할이 두드러지는 작품이 꽤 있어 당분간 여배우들이 큰 보폭이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광주CBS 내달 1일 개국 54주년

"진실된 방송으로 시청자의 눈·귀 되겠다"

민간방송으로 처음으로 지난 1961년 광주 전남지역에 첫 전파를 발사한 광주 CBS(본부장 김갑수)가 8월 1일로 개국 54주년을 맞는다.

광주CBS는 이에 앞서 31일, 본사 공개홀에서 교계와 학계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국 54주년 기념예배를 갖

는다.

이날 예배는 광주은성교회 안점수 목사의 기도와 CBS재단이사와 맡고 있는 호남대 김기태 교수의 성경봉독, 예장합동 총회장인 백남선 목사, 광주연예교회 리종민 목사 등이 축사를 한다.

김갑수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진실



김갑수 본부장

된 목소리에 목말라하는 시청자에게 세상을 보는 맑은 눈과 귀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복음사역과 건전한 교회문화 형성을 위해 CBS가 앞장서 나가겠다"며 광주 전남 지역 사회의 기도와 성원을 호소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달달하고 풋풋...나이에 딱 맞는 음악 찾았어요"

가수 유승우 '예뻐서' 공개

"어릴 땐 어리고, 어릴 땐 늙은 음악을 했다던 이번엔 제 나이에 맞는 트렌디한 변화를 시도한 것 같아요."

가수 유승우(18)가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엠버서티브홀에서 열린 쇼케이스에서 세 번째 싱글음반 타이틀곡 '예뻐서'를 공개하며 이 같은 변화를 소개했다. 이번 음반은 그가 씨스타의 소속사인 스타쉽엔터테인먼트로 이직한 후 처음 선보인 신보로 음악적인 변화를 기대하게 했다.

'예뻐서'는 김도훈이 작곡하고 김이나가 작사했으며, 깃스의 루이가 랩을 더한 알앤비(R&B) 풍의 곡이다. 유승우의 기존 곡보다 한층 세련되고 대중성을 입었다. 그는 "아직 대중이 제 음악 색깔을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겠다"며 "저는 그간 어쿠스틱 기반의 밴드 음악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레퍼가 참여한 달달하고 풋풋한 사랑 노래를 하게 돼 제 나이에 맞는 색깔을 찾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엠넷 '슈퍼스타K 4'에서



인디밴드 불나방스타포세지클럽의 '석봉아'를 불러 화제가 된 그는 단박에 누리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10대의 어린 나이에 기타를 치며 미성을 들려준 그는 이후 자신의 앨범에 틈틈이 자작곡을 수록했지만 이번엔 유명 작곡가의 노래를

불렀다. 그는 또 다른 신곡 '그 밤사이'의 작사에만 참여했다.

그는 "두 분이 만들어준 곡을 들었는데 마냥 부르고 싶더라"며 "제가 앞으로 할 음악에도 밑받침이 될 것 같다. 배우는 느낌으로 작업했다"고 강조했다.

'슈스케 4' 출연 이후 지난 3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는 꽤 진지한 답변을 내놓았다. "가수가 노래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쇼케이스에서 말도 잘해야 하더군요. 인터뷰를 거치면서 기사가 어떻게 나가지도 알았고요. 3년 새 알게 된 게 너무 많고 그걸 빨리 배웠다는 점이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싱어송라이터로서 음악적으로 더 많은 걸 하지 못했다는 점이지. 제 음악을 더 사랑해야 했어요. 하하."

이날 유승우는 트레יד드 마크인 기타를 연주하며 신곡과 펌 '맨 인 더 미러'(Man in the Mirror)를 라이브로 선보였다. '유튜브 스타'인 기타리스트 정성하가 게스트로 등장해 둘이 함께 작곡한 미발표곡 '실수'도 기타 듀엣으로 들려줬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30일(음 6월 15일 丁未)
48년생 순조로운을 이끄는 선행 조짐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60년생 접근성이 좋아어제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라. 72년생 지금 관리해 두는 것이 이익이다. 84년생 먼 곳에서 온 정보가 이익을 부른다. 행운의 숫자 : 11, 77	42년생 변경 여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형상이니라. 54년생 투철한 소명 의식이 절실한 때이다. 66년생 가로 막는 것이 보여지면 우회하는 것이 용이하다. 78년생 기본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자. 행운의 숫자 : 82, 39
49년생 시류에 편승하면 무난하다. 61년생 규칙적이고 계속적이 어야만 효과를 보는 법이다. 73년생 의도외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버리는 위상이니라. 85년생 단독으로 행하지 말고 길잡이와 함께 하도록 하자. 행운의 숫자 : 85, 91	43년생 편곡을 좌우할만한 격량이 요동친다. 55년생 감당할 수 만 있다면 수용하는 것이 백 번 낫다. 67년생 우연한 기회가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 79년생 불합리한 요소가 보인다면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40, 27
38년생 앞서간다면 역효과를 초래리라. 50년생 본격적으로 나서기에는 아직 이르다. 62년생 머구름 사이를 헤치고 희망의 붉은 해가 차솟는다. 74년생 실수가 없어야겠다. 86년생 순식간에 나타나지마자 사라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5, 73	44년생 확실한 번벌력이 절실하다. 56년생 상대의 충고를 소중히 여기고 경청하자. 68년생 잘 선택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어 있느니라. 80년생 대단히 신기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10, 63
39년생 매끄러운 방법의 구사가 절실하다. 51년생 시기가 아니라 의지의 유무가 관건이다. 63년생 태어나서 가장 거센 강도의 현상일 것이다. 75년생 도모하고자 한다면 이루어지는 날이다. 87년생 문제점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68, 79	45년생 각각 달라서 일정하지 않으리라. 57년생 길사를 맞이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여기저기 연락하고 있는 성국이다. 69년생 속히 진행할수록 성과가 두드러진다. 81년생 인식하는 각도에 따라서 현저한 차이가 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8, 57
40년생 미리 준비했다면 빛을 본다. 52년생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64년생 진행에 따른 성과가 드러나고 있는 면모이니라. 76년생 지나친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오판을 야기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99, 71	46년생 조정해야 할 것이 있으니 중간 점검 해보는 것이 낫다. 58년생 듣기 좋은 말이 폭이 될 수도 있다. 70년생 오늘날 날이 아니니 무리할 필요는 없다. 82년생 속히 판단하지 못한다면 기회를 놓치기 쉽다. 행운의 숫자 : 90, 29
41년생 신속하고 정확해야만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53년생 상호적일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을 알라. 65년생 자연스러움이 제일 무난하다. 77년생 리듬을 잘 타야만 무탈하다. 행운의 숫자 : 46, 02	47년생 강풍이 우산이 뒤집힐까봐서 안간힘을 쓰며 나아가는 양태이다. 59년생 일처하지 않는다면 몇 번이고 재고해야 할 것이다. 71년생 실행이 중요하다. 83년생 위약성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64, 4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